산업통상자원부	보도자료	외교부
http://www.motie.go.kr		http://www.mofa.go.kr

보도일시	2020.7.22.(수) 조간 통신, 인터넷 등 7.21(화) 11:00 부터		배포일시	2020.7.21
담당	산업부	동북아통상과	정상용 과장(044-203-5690) 이주영 사무관(044-203-5693)	
		신남방통상과	배성준 과장(044-203-5710) 하정욱 사무관(044-203-5713)	
	외교부	동아시아경제외교과	박경진 과장(02-2100-7680) 양주현 행정관(02-2100-7706)	
담당기관	대한상공회의소 아주협력팀 이성우 팀장(02-6050-3568) 한국무역협회 서욱태 중국실장 (02-6000-5381) 코트라 김주철 투자 M&A 팀장 (02-3460-7351)			

정부·경제단체 협력해 베트남, 중국 가는 하늘길 열었다

- 베트남 특별입국 규모 대폭 확대, 1,500명 출국(7.22~) -

- 중국 중소·중견기업 최초 전세기 특별입국, 159명 출국(7.23) -

□ 코로나19로 인한 **세계 각국**의 **입국 제한 조치**가 **장기화**되는 상황에서 **정부**가 **주요 경제단체와 협력**하여 핵심경제협력국인 **베트남, 중국**에 대한 **전세기 특별입국**을 추진한다.

○ 이번에 추진되는 **베트남 특별입국**은 지난 4월 추진되었던 특별입국의 4배가 넘는 **약 1,500명 규모**이며, **7.22(수) 241개사* 571명**을 시작으로 **8월까지 광닌성, 빈푹성 등으로 출국**할 예정이다.

* 중소·중견기업 220개사(중소·중견 비중 91%), 대기업 17개사, 공기업 4개사(7.20 기준)

○ 또한 **중국 특별입국**의 경우 **최초로 추진**되는 **중소·중견기업 특별입국**으로서, **7.23(목) 57개 기업의 159명***이 전세기를 통해 **중국 광둥성으로 출국**할 예정이다.

* 중소·중견기업 48개사(중소·중견 비중 84%), 대기업 7개사, 공기업 2개사(7.20 기준)

○ 기업인들은 현지 도착 이후 **14일간의 격리**를 거친 후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개시하게 되며, **격리기간 중 방역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**와 함께 **현지적응을 돕기 위한 경제·문화 등 비대면 교육**을 받게 된다.

□ **이번 베트남·중국 기업인 특별입국**은 산업부·외교부·주베트남한국대사관·주광저우한국총영사관 등 **정부부처**와 대한상공회의소·무역협회·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**경제단체**가 **긴밀하게 협력**하여 **기업 수요접수, 사증발급, 전세기 섭외 등을 진행하여 성사**되었다.

○ **(베트남)** 지난 **4.29일 중소·중견기업 필수인력 340명의 특별입국** 이후 기업인들 중심으로 **추가 입국수요가 약 4,000명이 접수***되었는데 이번 특별입국을 통해 **일부 해소**될 것으로 기대되며,

* 4.29 특별입국 이후 총 1,646개사 3,953명 특별입국 희망 접수(7.20일 기준)

- 특히 **기업인과 함께 가족들의 특별입국까지 지원**함으로써 **우리 기업인들의 현지생활 안정과 업무효율 향상에도 기여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**(중국) 정기 항공편**이 **제한적**인 상황에서 **기존 대기업 중심**으로 진행되던 **전세기 특별입국**을 **최초로 중소·중견기업으로 확대**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.

□ **이번 특별입국**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필수인력 입국제한, 설비도입 지연 등으로 **현지 사업 추진에 차질**을 겪고 있는 **중소·중견기업들의 애로해소**에 **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** 기대된다.

□ 한편 7.22(수) 기업인 베트남 출국 계기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기업인 **환송 간담회**에서 **박복영 신남방위원장**은 "**이번 특별입국이 성공적으로 추진**될 수 있도록 **유관기관 및 상대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**해나갈 예정이며,

○ **기업들의 입국제한애로**를 **보다 체계적으로 지원**할 수 있도록 **지원체계 고도화**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다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이주영 사무관(044-203-5693), 신남방통상과 하정욱 사무관(044-203-5713),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양주현 행정관(02-2100-770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